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권병학 (요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성탄 시기

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오 2,2)

미사 시간	
미 사	주일 11:00(본당)
	주일 17:30(공소)
평 일	매주 (화) 20:00
	매월 첫 (목) 19:0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목) 19:3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 년에 1 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 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주일 10:00, 대철실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 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9:30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뇌 성모 기도회	매월 1,3 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 주(목) 성시간 후



총 약정 목표액: \$110,000
실질 약정액: \$86,409 현(10/25 기준)
적립금액(\$76,263)
※주소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총무에게 문의

본당 소식

◎전례 안내

▶1/ 5(일) 주님 공현 대축일 (본당 11:00, 공소 17:30)
 ※ 성수 예식(성가 67 번) 및 축일자 축하(성가 528 번)가 있습니다.
▶1/ 7(화) 주님 공현 대축일 후 화요일 (본당 20:00)
▶1/ 9(목) 주님 공현 대축일 후 목요일, 성시간 (본당 19:00)
▶1/12(일) 주님 세례 축일 미사 (본당 11:00)

◎2025 년 본당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봉사자들

【사목위원】

▪회장 권병학 요한

▪성모회장 우경숙 율리아

▪총무 김성수 베드로

▪부총무 박규해 카타리나

▪재정분과장 하태성 베드로

▪전례분과장 이미란 아네스

▪선교분과장(꾸리아 단장) 강영희 스킴라스티카

▪교육분과장 이동규 프란치스코

▪시설관리분과장 전대원 요한

【각 부서와 제단체 봉사자】

▪전례분과 차장 김영미 스텔라

전례분과위원 김지현 아네스, 흥미경 마리아, 현혜경 마리아, 최유수 모니카

▪해설 독서단 단장 권희진 요안나

▪복사단장 최두원 스테파노

▪성모회 최샤니 세실리아, 김양울 사비나, 권희진 요안나, 임선녀 세라피나

▪성물방: 김나경 발레리아, 이은영 힐데가르트

▪성가대 반주자: 이민아 루시아

▪선교분과 차장 및 울뜨레아 간사 박혜영 수산나

▪주일학교 대표 교사 박혜영 수산나

주일학교 교사 이상은 엘리사벳, 정세빈 아델라, 홍연아 에스텔

▪셋별 Pr.: 김상표 시몬

▪평화의 모후 Pr.: 임선녀 세라피나

▪천상의 어머니 Pr.: 신신배 켄마

▪사랑하올 어머니 Pr.: 강영희 스킴라스티카

▪바뇌기도회: 흥미경 마리아

【구역장】

1 구역장 정종만 루카 2 구역장 조정순 미카엘라
3 구역장 강정숙 마리아 4 구역장 정혜자 스테파니
5 구역장 흥미경 마리아 6 구역장 신철호 시몬
7 구역장 황미옥 레지나

◎성모회 ’24 년 성모회 결산은 게시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설 미사 (1/26) 예물 및 초, 제병, 제주 봉헌
 설 미사 예물과 올해 사용할 제주, 제병, 초 봉헌은 전례부
◎남아 있는 현금 봉투는 각 구역장님께서 전달해 주세요.

단체 소식

▶울뜨레아: 1/9(목) 미사와 성시간 이후, 친교실
▶꾸리아: 1/12 (일) 13:00 하상실
▶은빛 모임: 율놀이 - 오늘 친교식사 후 친교실

공소 소식

◎2025 년 공소를 위해서 봉사해 주실 봉사자들

▪사목 회장 송재경 파스칼 ▪총무/ 재정분과 김재익 베네딕도
▪성모회장 송인순 에밀리아나 ▪성모회 총무 김윤정 데레사
▪전례분과장 우민성 세실리아
◎ 이번 주 식사는 송인순 에밀리아나 자매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1 월 축일자: 송인순 에밀리아나

구역모임 (소식)

1 구역:1/26(일) 14:00 친교실
2 구역:1/18(토) 11:00 친교실
3 구역:1/18(토) 12:00 강영희 스킴라스티카 자매님
4 구역:1/18(토) 18:00 황창환 알비노 형제님
5 구역:1/18(토) 17:00 채병두 베네딕도 형제님
6 구역:1/18(토) 17:00 신철호 시몬 형제님
7 구역:1/25(토) 18:00 최용욱 에드몬드 형제님

친교 식사

1/5: 5 구역 닭개장(\$5/\$3)
1/12: 6 구역 1/19: 7 구역 1/26: 2 구역

◎1 월 축일자 명단(16 명)

1/ 1 마리아(신낙홍, 황기영) 1/ 5 시메온(한기종)
1/13 레미지오(유루이) 1/17 안토니오(권이용)
1/19 비아(임연신)
1/20 세바스찬(신용두, 이 세바스찬), 파비아노(이준환)
 세바스티아노(김창욱)
1/21 아네스(백아네스, 김지현, 이미란, 권민지)
1/25 바오로(이종수) 1/28 올리비아(최은)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36 명)

주일헌금	\$0	교무금	\$0
감사헌금	\$1950	성전건립	\$0

2025 회년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회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안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흘러 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주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람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1/ 5	권희진 요안나	유세진 라파엘 최다희 보나 최다혜 플로라 유서진 다니엘	1 독서: 김한욱 에릭 2 독서: 채정희 올리비아	신낙홍 마리아 이은영 힐데가르트
1/12	박규혜 카타리나	이준서 사도요한 이지민 이사벨라	1 독서: 이은영 힐데가르트 2 독서: 강지원 요안나	김한욱 에릭 채정희 올리비아
1/19	김성수 베드로	이준우 바오로 이소민 그레이스	1 독서: 이인선 켄마 2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이은영 힐데가르트 강지원 요안나

“앞드려 경배하였다.”

노우재 미카엘 신부
서동성당 주임

유다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 임금이 오시어 다윗 왕국을 다시 일으켜 주기를 고대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아주 이상합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유다인들은 꿈적하지 않고 이방인들만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방 박사들은 유다인들의 임금이 탄생했으니 예루살렘에 계시겠거니, 유다 백성들이 환호하고 있겠거니 했는데 예상과 달리 예루살렘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하고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헤로데는 당시 유다 지역을 다스린 임금이었지만 “유다인들의 임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좌를 잃을까 위협감을 느꼈고 새로 태어난 메시아를 없애버리려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였고, 성경을 가르친 이들이었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율법 학자들은 학식이 가장 뛰어난 사람답게 예언서를 근거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하고 곧바로 답을 내놓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를 듣고 베들레헴을 향해 곧장 길을 떠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앞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들도 메시아 임금이 탄생한 것을 알았고, 그 위치를 알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먼저 메시아를 경배하러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만 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경배하라고 말한 이들이 실제로는 주님을 찾지 않은 겁니다. 날마다 율법서를 공부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알던 이들이 실제로는 주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헤로데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헤로데의 품이, 그가 제공하는 돈과 힘의 그늘이 너무나 아늑했습니다. 곁으로는 주님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영광과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했던 겁니다.

오늘 복음은 당시 유다교를 첨예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부귀영화를 뒤로 하고 메시아를 찾아 경배했건만, 유다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것만 찾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옛날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잘되는 것만 바랄 뿐 주님을 찾고 따르는 데는 그다지 관심 없는 현세대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해서는 안 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앞드려 경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 철 주 보

배움과 체험의 해

2025 사목지침

<http://cafe.daum.net/stpeteryu>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주님 공현 대축일 (2025. 1. 5.)

제 1 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60,1-6

화답송 시편 72(71),1-2.7-8.10-11.12-13(© 11 참조)

